

‘천주교 서울 순례길’ 세계이목 집중

교황청 공식 국제 순례지 선포
순례지 일부 인근 관광 명소
‘해설 있는’ 3개 코스 개발 완료

‘천주교 서울 순례길’이 아시아 최초 교황청 공식 국제 순례지로 선포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선포식은 14일 오전 10시 서소문역사공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열수정 추기경,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알프레드 수에레브 주한 교황대사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교황청 리노 피시켈라 대주교가 교황청 승인 국제순례지로 선포하고 증서를 전달한다. 박 시장은 순례길 조성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프란치스코 교황의 축복장을 받는다.

선포식에 앞서 시는 10~14일 해외 미디어와 여행사 상품기획자를 초청해 사진답사여행을 개최하고 ‘해설이 있는 서울 순례길’을 홍보한다. 5개국(홍콩·태국·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 6개 해외 매체와 6개국(중국·미국·러시아·일본 등) 10여개 여행사 상품기획자가 여행에 참여한다.

시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세계적 도보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총 44.1km를 잇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에 포함된 순례지 일부와 인근 관광명소를 연계해 ‘해설이 있는 서울 순례길’ 3개 도보관광지를 개발, 15일부터 운영한다.

‘해설이 있는 서울 순례길’ 3개 구간은 ▲북촌 순례길(3km, 2시간 소요) ▲서소문 순례길(4.5km, 3시간 소요) ▲한강 순례길(4km, 2시간 30분)이다. 서울 문화관광 해설사들의 해설과 함께 약 2~3시간에 걸쳐 돌아볼 수 있는 구간이다.

북촌 순례길은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당시 순교자 124위 시복이 이뤄졌던 광화문 시복터에서 시작해 조계사, 인사동, 윤현궁 노



천주교 서울 순례길 중 서소문 순례길

라당, 석정보름우물, 가회동 성당으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천주교 뿐 아니라 불교와 천도교 등 다양한 종교 사적지를 답사하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삶의 태도를 생각할 수 있다.

서소문 순례길은 한국 천주교의 시작과 근대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길이다. 천주교 공동체의 발원지인 명동대성당을 시작으로 근대 건축물인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과 서울시립미술관을 지난다. 마지막으로 비극적 역사를 안고 있는 서소문밖 네거리 순교성지와 중립동 약현성당을 둘러 천주교 역사의 명과 암을 살펴볼 수 있다.

한강 순례길은 시골벽작한 마포음식문화거리가 있는 마포역에서 출발해 마포나들목을 지나면서 한적한 한강길로 이어진다. 절두산 순교성지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서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다.

해설이 있는 서울 순례길은 서울도보관광 누리집(http://korean.visitseoul.net/walking-tour)을 통해 사전예약 후 참가할 수 있다.

15일부터는 세계적인 여행매체인 내셔널지오그래픽 공식 누리집(www.nationalgeographic.com)

과 630만명 팔로어를 보유한 내셔널지오그래픽 아시아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NGCAsia)을 통해서도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홍보한다.

서정협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천주교 서울 순례길은 천주교 신자들의 소중한 신앙 유산 일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의미 있는 역사문화유산”이라며 “이번 교황청 국제순례지 승인을 계기로 전 세계에 한국 천주교회의 특별한 발자취와 순례길 위에 있는 서울의 역사문화유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등 세계적으로 순례지는 신지뿐만 아니라 세계의 관광객들이 방면해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며 “특히 박해와 순교의 역사 및 선교사 없는 자발적인 전래과정 등 독특한 스토리텔링 요소가 풍부해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높은 만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발굴해 관광자원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 학술대회

고창 참가 동학정신 계승 의지 다져

“(사)전봉준동상건립위원회가 최근 서울시 종로구 소재 마로니에공원 다목적홀에서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과 전봉준 가계연구’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에 고창군 유기상 군수는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원 등 40여명과 함께 참여하여 동학정신 계승의 의지를 다졌다.

학술대회에서는 이이화 이사장의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과 연구소 구상’이라는 기초강연을 비롯해 제1주제 ‘전봉준 장군 동상 제작과정의 고증문제’를 충북대 신영우 교수가 발표 했다.

이을러 제2주제로 ‘전봉준 장군의 전옥서 수감과 교형의 의미’를 연세대 왕현종 교수가, 제3주제 ‘족보에 나타난 전봉준 장군 처가와 외가 검토’는 전북대 송정수 교수의 발표로 이어졌다.

제4주제 ‘전봉준 장군 동상의 현황과 사색비교’는 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부장)의 발표를 듣고 종합토론에는 역사문제연구소 은정태(역사문제연구소), 이영호(인하대), 문병화(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병규 연구부장은 “고창의 전봉준 생가터는 1988년에 2,813평방미터를 매입하고 2000년에 주택 65.5평방미터, 부속사 48평방미터를 복원하였으나, 고증 없이 잘못된 복원되어 이곳을 다녀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 건물의 문제점



을 지적하면서 외면하고 있어 더 이상 전봉준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기능을 다 하고 있지 못하다”며, “고증과 공감에 부족한 단편적인 시설의 설치 등 일회성 사업보다는 전봉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전 반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상징화를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전봉준 원적지인 ‘한반도 첫 수도 고창군’의 군민을 대표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온 연구자와 학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찬년 민족사의 광휘라 한 뜻과 같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인 고창군은 동학농민혁명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동학농민유적지 성지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교육과 유적지 현장탐방, 학술대회 등 군민들이 직접 참가하여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창=김영식기자

‘지스타 2018’ 메인 스폰서 에픽게임즈 확정

해외기업 최초 업무협약 체결

특별 프로그램 협력 등 홍보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8’의 메인 스폰서로 에픽게임즈가 확정됐다.

해외 기업의 ‘지스타’ 메인 스폰서 참여는 이번이 최초다.

지스타조직위원회는 지난 11일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 5층 회의실에서 에픽게임즈의 한국법인 에픽게임즈 코리아와 ‘지스타 2018’ 메인 스폰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산철 지스타조직위원장과 박성철 에픽게임즈 코리아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직위와 에픽게임즈 코리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스타 2018’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해외 기업이 ‘지스타’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는 역대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보다 극대화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양측은 메인 스폰서십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벡스코 전시관 내·외부와 행사장 인근 지역,

부산 시내 곳곳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지스타’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강산철 조직위원장은 “글로벌 게임사의 메인 스폰서 참가로 국제적 게임 행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게 됐다”며 “에픽게임즈와의 협약 체결이 ‘지스타’의 글로벌 위연 확대와 인지도 확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철 에픽게임즈 코리아 대표는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포트나이트’가 국내 팬들에게도 입소문을 통해 사랑을 받기 시작함에 따라, 더 많은 국내 팬들에게 ‘포트나이트’의 재미를 알리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장소인 ‘지스타’에 메인 스폰서로 참가하게 됐다”며 “지스타에 여러 해 참가해 왔지만 이번만큼(BTC)행사장에서 많은 관람객들을 만나는 것은 처음인 만큼 민간의 준비를 다 해 에픽게임즈다운 차별화된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K-GAMES가 주최하고 지스타조직위원회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지스타 2018’은 오는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뉴스

“12월까지 정상업무... 끝까지 노력할 것”

바르토크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연임 의사 피력에도 임기 종료 통보

바르토크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연임이 불가한 가운데 “정상적인 업무진행뿐 아니라 가능하다면 보다 훌륭한 수준의 활동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마리 관장과 국립현대미술관은 이날 오후 언론사에 국립현대미술관장 임기 종료 결

정에 따른 편지를 배포했다.

마리 관장은 “미술관장의 3년 임기는 짧다. 제가 한국에서 첫 발걸음이 두 번째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한다”며 “연임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지만, 문체부는 11일 ‘연임 불가’ 통보를 했다.

국립현대미술관 하반기는 해외 유명 작가들의 전시가 잇따른다. 하문 파로키(11월), 마르셀 뒤샹(12월 서울관), 제니 홀저(서울관) 등의 대형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마리 관장 임기는 12월 13일까지다. /뉴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